

국내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료

1. 국내 요양 시장 현황 및 특성
2. 해외 사례
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4.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2021. 7

KB골든라이프케어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국내 요양 시장은 2008년 도입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기반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지속 증가하여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에 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008년 도입

장기요양 인정자¹⁾ 현황 및 추이

(건강보험공단)

◦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 장기요양 인정자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6,192	6,462	6,719	6,940	7,310	7,611	8,003	8,496
노인인구 비율	12.2	12.7	13.1	13.5	14.2	14.8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24	467	519	585	670	772	857
인정자 비율	6.1	6.6	7	7.5	8	8.8	9.6	10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율	-	12	10	11	13	15	15	11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자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2)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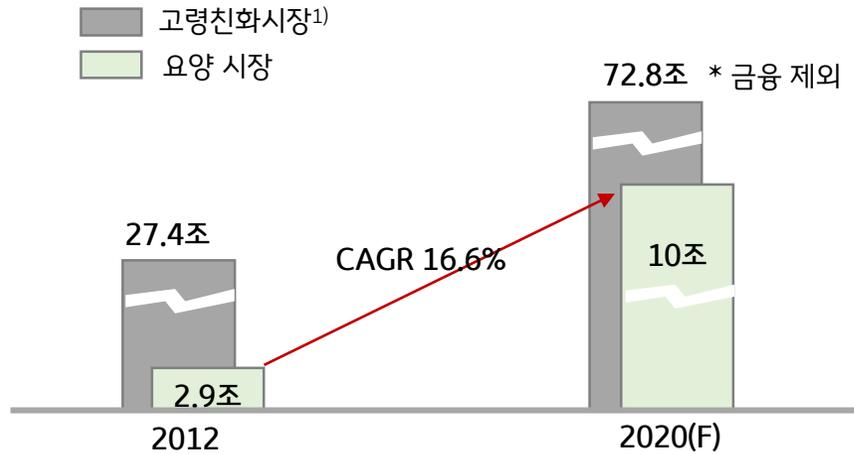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요양 시장은 연평균 16.6% 성장

- 2020년 10조 규모인 요양 시장 규모는 고령화의 진전,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증가 등에 따른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로 더욱 확대 전망

시장 규모 및 추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
 - 요양 시장은 2012년 2.9조에서 2020년 10조 규모로 연평균 16.6%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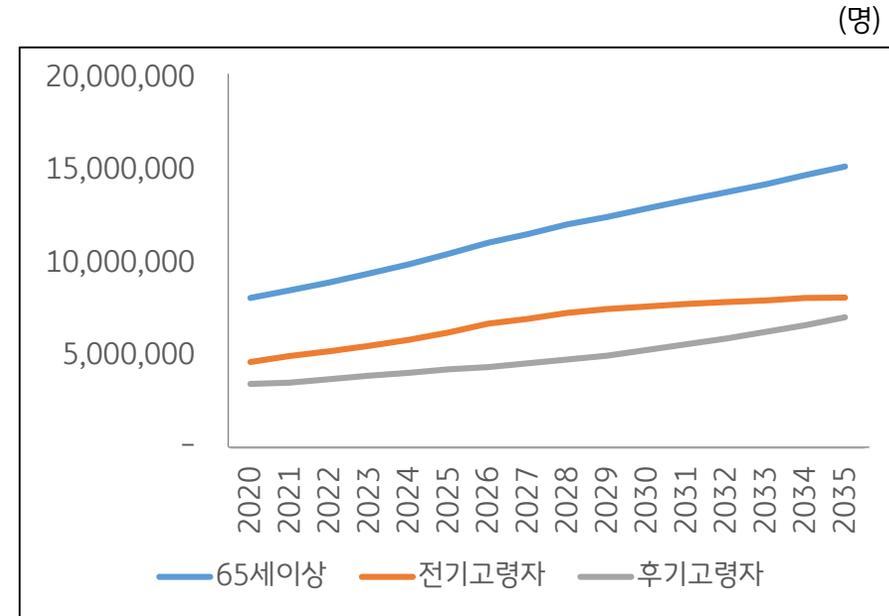


1) 요양, 주거,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여가

고령자 현황 및 추계

(통계청)

- 65세 이상 노인인구 지속증가하여 2035년에는 1,52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를 전망
-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큰 폭으로 증가 추세이며 2035년에는 709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7%에 이를 전망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3) 공급 현황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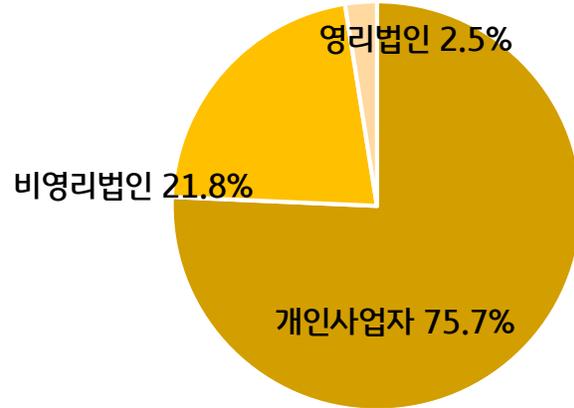
- 소규모 개인 사업자 중심의 공급으로 서울 등 대도시(도심)의 공급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문제 발생

○ 장기요양 기관 현황

- 장기 요양기관은 현재 요양 시설(입소 시설) 5,806개, 재가 요양기관 19,725개(주야간보호 4,623개)
- (보건복지부 추계)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2022년까지 요양 시설 6,999개소, 주야간보호기관 5,020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예상

○ 장기요양 운영기관 운영 주체

- 장기요양 운영기관에서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7%로 매우 높음



○ 요양시설 규모별 기관 현황

- 30인 미만 69%, 30~70인 미만 16.7%, 70인 이상 14.3%

국내 요양 시설 공급의 한계(문제점)

○ 지역별 요양시설 공급 편차 존재

- 대도시(도심)의 경우 토지 및 건축비가 높아 개인 사업자의 접근이 어려워 공급 한계

요양시설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충족율	55.4%	55.9%	83.2%	93.1%	99.3%	102.9%	114.6%	120.1%
전남	대전	경북	충남	강원	충북	인천	경기	제주
125.5%	128.1%	140.0%	150.4%	183.5%	184.5%	194.3%	195.6%	198.0%

○ 낮은 요양서비스 품질

-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기관 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남

구분	기관 평가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요양시설(전체)	13.5%	21.7%	24.4%	19.8%	20.6%
운영 주체별	지자체 87.6점 > 법인 80.1점 > 개인 69.7점				
요양시설 규모별	30인 이상 81.7점 > 10인 이상 30인 미만 73.7점 > 10인 미만 6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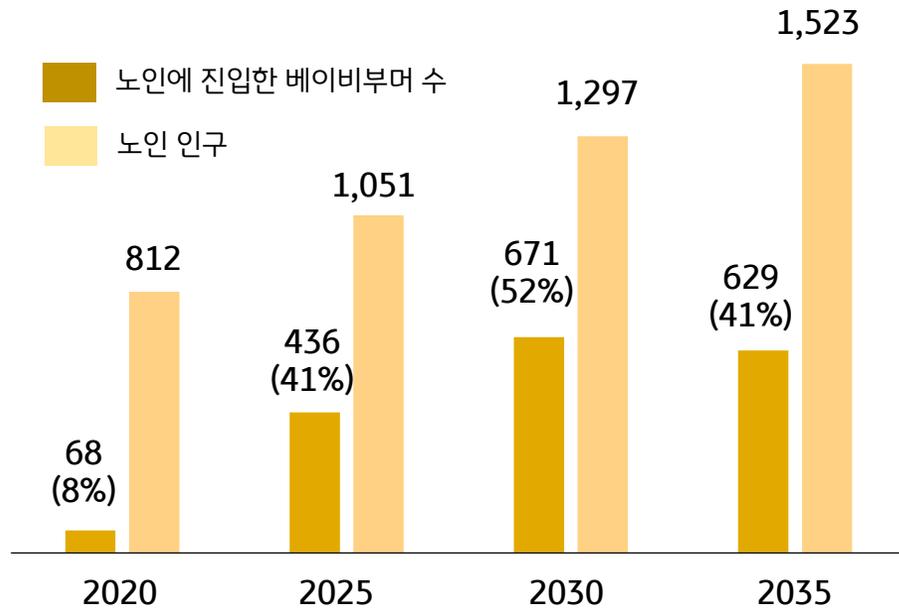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4) 미래 요양시설 이용자의 욕구 변화

경제력/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고, 요양시설 이용자로 진입함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
- 다양한 니즈에 맞춘 요양서비스 모델 필요(선택권의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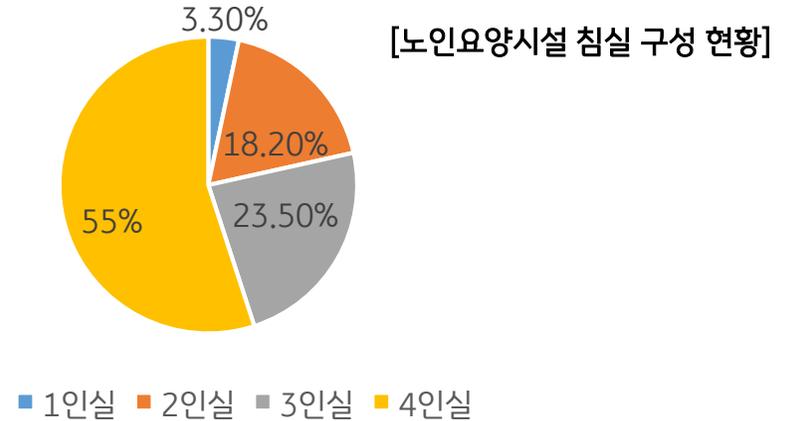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만명)

○ 베이비부머¹⁾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 전망



1) 1955~63년생으로 교육 수준 높고 경제력 보유

○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다인실 위주의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향후 요양시설은 1인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감염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1인실 위주로 방향 선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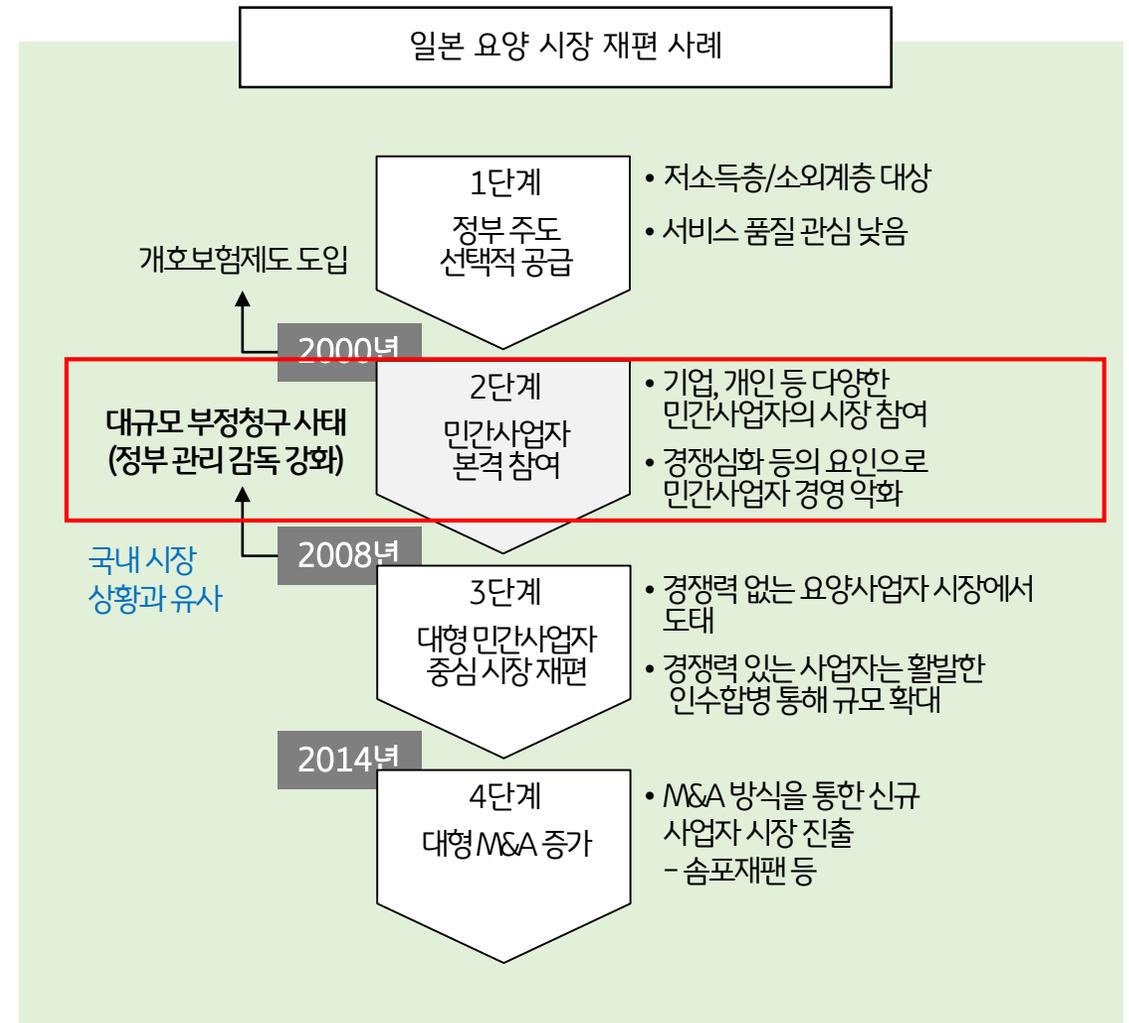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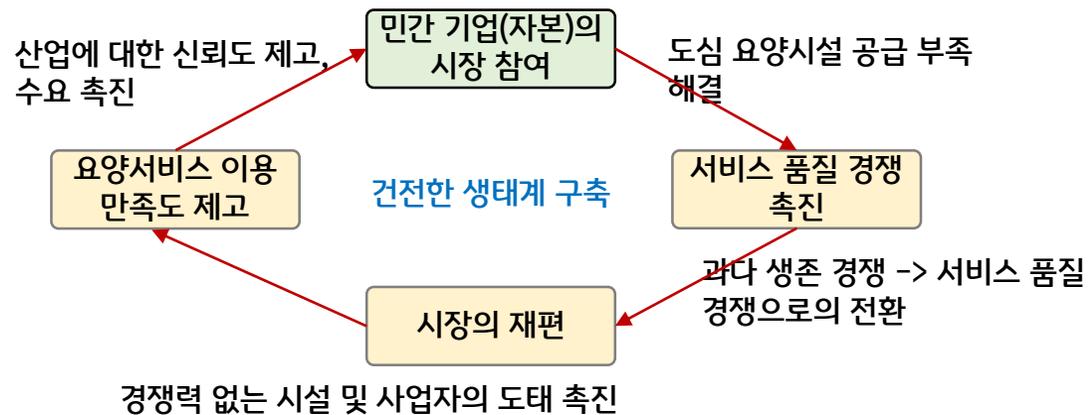
○ 앞으로의 노인층은 삶의 전반을 도심 환경에서만 생활해 온 경우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요양 시설도 도심 내에 자리 잡는 것이 필요

1. 국내 요양 시장의 현황 및 특성

5) KB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시장의 전개 방향

서울 등 도시지역의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도시의 고령화 진전,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해결 가능

- 서울 등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현상은 도시의 고령화 진전, 토지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 수도권, 20%가 지방 광역시에 거주
 - 서울시 2018년 노인인구 141만명으로 고령사회 진입 등 도시의 고령화가 시작
- 민간 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
 - 자산운용사 등 신규 투자 아이템이 필요한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도심에 요양시설 구축하여 공급 부족 문제 해결
 -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양서비스 품질과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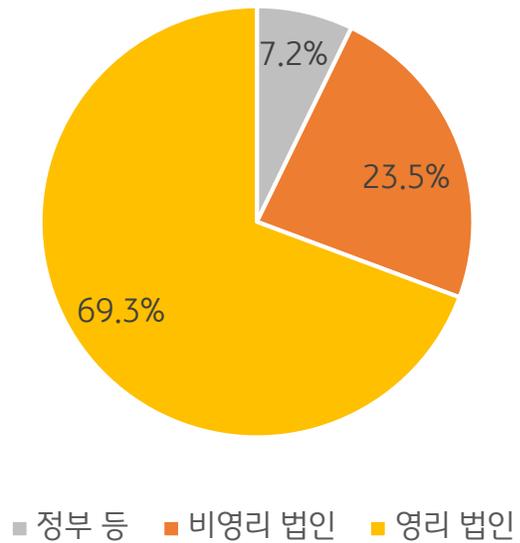
주) 2020년 상반기 국내 요양시설 부당청구기관 비율 80%로 지속 증가 추세

2.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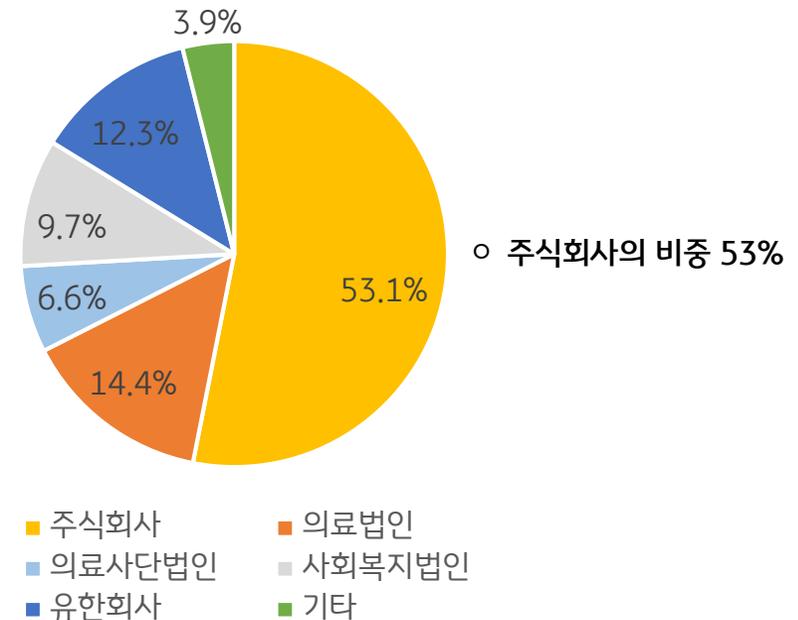
1) 미국과 일본의 민간기업 요양 시장 참여 현황

- 미국은 고령화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시장이 형성, 수익성이 입증된 후 다양한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증가, 노인 독거 및 부부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의 정책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2011년 고령자 주거법 개정을 통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주택, 유료노인홈 공급 확대 추진

미국 Long-term Care Providers 현황



일본 개호 시장의 사업자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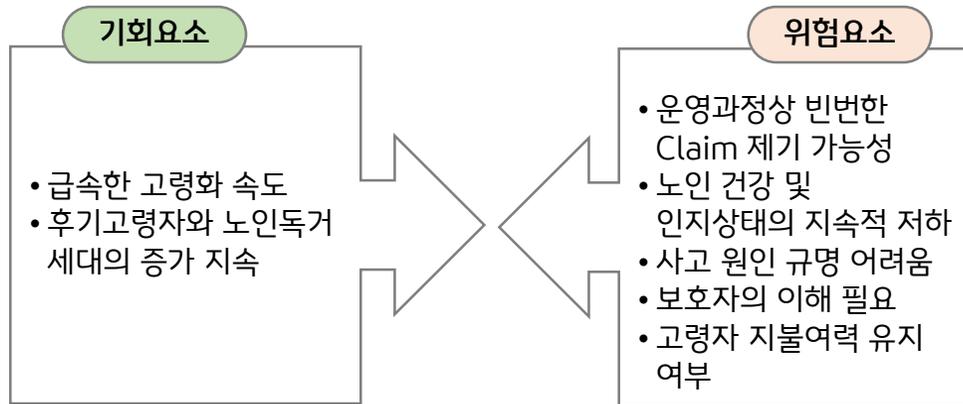
Long-term Care Providers and Services Users in the United States, 2015-2016

[첨부] 미국과 일본의 소유와 운영 분리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대규모 자본이 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이를 전문운영업체가 장기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생태계 구축

- 노인 비즈니스에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 요인을 전문 운영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시설 개발 및 소유 기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자본 유입
- 많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도심지역 내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

요양 시장의 기회와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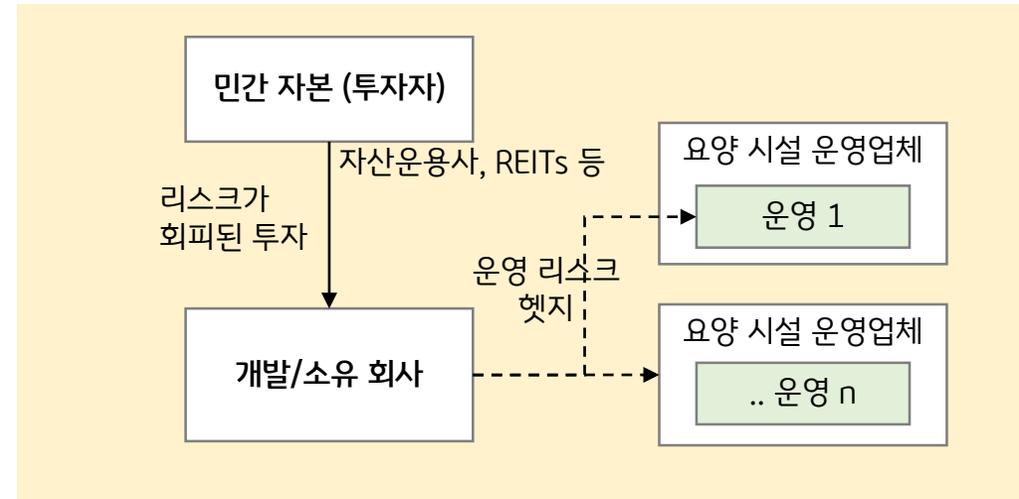
- 장기, 안정적 기대수익 가능한 비즈니스이나 사업 속성상 제어 어려운 위험이 상존
 - 민간기업 시장 참여의 허들
-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일찍부터 요양 시장에 진출하여 경험과 운영 역량을 축적

주) 우리나라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으나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기업 부족

운영 리스크 헷지를 통한 대규모 자본 유입

- 노인 비즈니스의 본질적 위험을 전문 운영 회사로 헷지
- 개발/소유 기업에 대규모 투자 유입
 - 노인요양시설의 개발과 운영 사업자가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 마련

[소유와 운영 분리하는 사업 구조]



2.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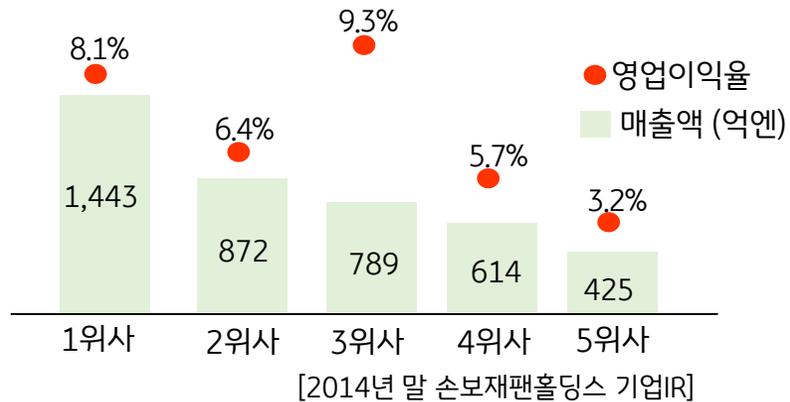
2) 일본 보험사의 요양 시장 진출 현황

일본 보험업계는 요양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회사 설립 및 M&A 를 통해 요양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일본 보험사의 요양 시장 진출 배경 및 현황

◦ 안정적인 수익 창출

- 일본 요양 사업은 평균 영업 이익율이 8.4%로 안정적 수익 실현 가능



◦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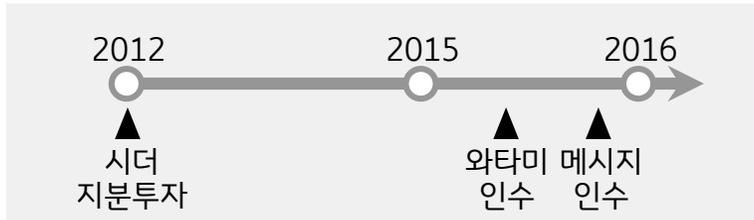
- 2025년 약 20조엔 시장으로 성장 기대

보험 그룹명	요양 사업자명	재가 요양사업(점포 수)			시설 요양사업 (호실 수)	
		방문 개호	주야간 보호	재가 간병지원	유료 노인홈	서비스 고령자 주택
솨포 홀딩스	(주)솨포케어	625	61		25,500	
동경해상홀딩스	(주)동경해상 베타라이프	40	-	40	501	104
미츠이시미토모	(주)미츠이시미 토모케어넷	3	-	3	223	-
아이오이닛세이	(주)후레아이 서비스	-	4	-		-
니혼생명	닛세이성례 건강복지재단	2	-	1	760	-
메이지야스다생명	(주)선비너스 타치가와	-	-	-	137	-
소니보험그룹	(주)Lifecare Design	-	-	-	196	-

2. 해외 사례

3) 솜포 홀딩스 그룹의 요양 사업 참여 사례

- 솜포 홀딩스 요양 사업 진출 배경
 - 고객의 요구는 건강한 장수에 있음
 - 요양 관련 보험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 종합서비스 제공 필요
 - 솜포 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객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분석을 목표로 하며 솜포케어가 기여
- 2015년 M&A를 통해 요양사업 진출
 - 2018년 메시지, 솜포케어넥스트, 재팬케어서비스 3개사를 솜포케어로 통합



일본 요양사업 매출 순위
(2014년 기준)

1	니치이社	1,443億円
2社計		1,143億円
2	B社	872億円
3	메시지社	789億円
4	C社	614億円
5	D社	425 億円
6	와타미社	354 億円
7	E社	332 億円
8	F社	183 億円
9	시더社	107億円

-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대도시 중산층이 많은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개
 - 재택을 제외한 입주 부분 일본 1위 사업자
 - 유료노인홈 280개(17,320호), 서비스 고령자 주택 146개(7,678호)



- 사업 현황 미 실적
 - 2019년 기준 매출 1,238억엔, 영업이익 117억엔(영업이익률 9.5%)
 - 임직원 수 23, 387명
 - 그룹 내 매출 비중 4%
 - 개호 사업을 기반으로 자립 노인을 위한 사업, 치매관련 서비스 개발 및 식품 사업 등 관련사업으로 확대

3. KB골드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KB골드라이프케어는 어르신 케어 등 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목적으로 KB손해보험이 2016년 설립
 - 2021년 7월 현재 노인요양시설 2개소와 주·야간보호서비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준비 중

KB골드라이프케어 개요

- 회사 설립 : 2016년 11월
- 사업 영역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본금 : 260억
- 주주 : KB손해보험(100%)
- 직원 수 : 212명(2021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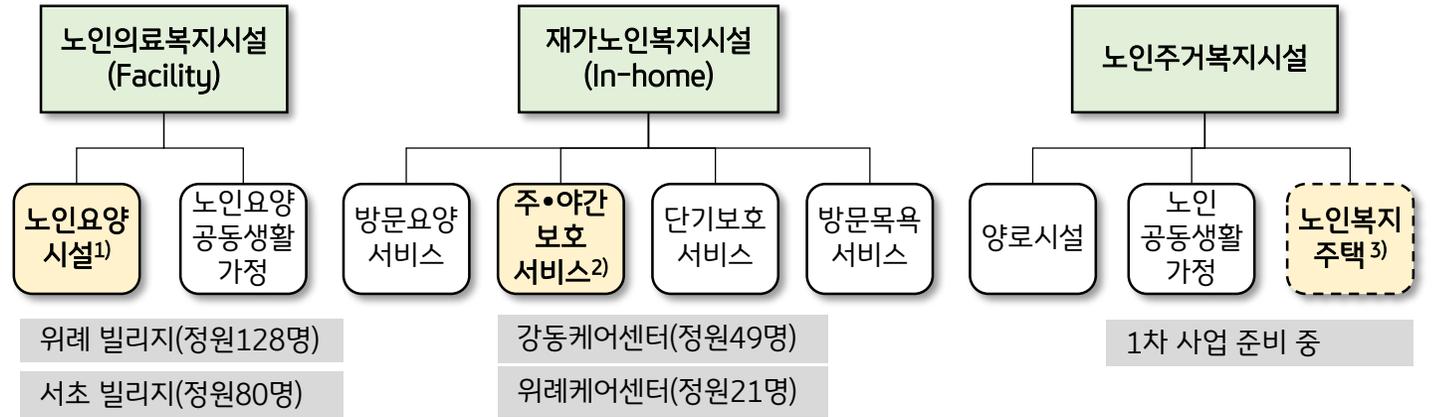
Mission

『안심과 희망을 주는 케어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Vision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Care Service 제공 기업』

제공 중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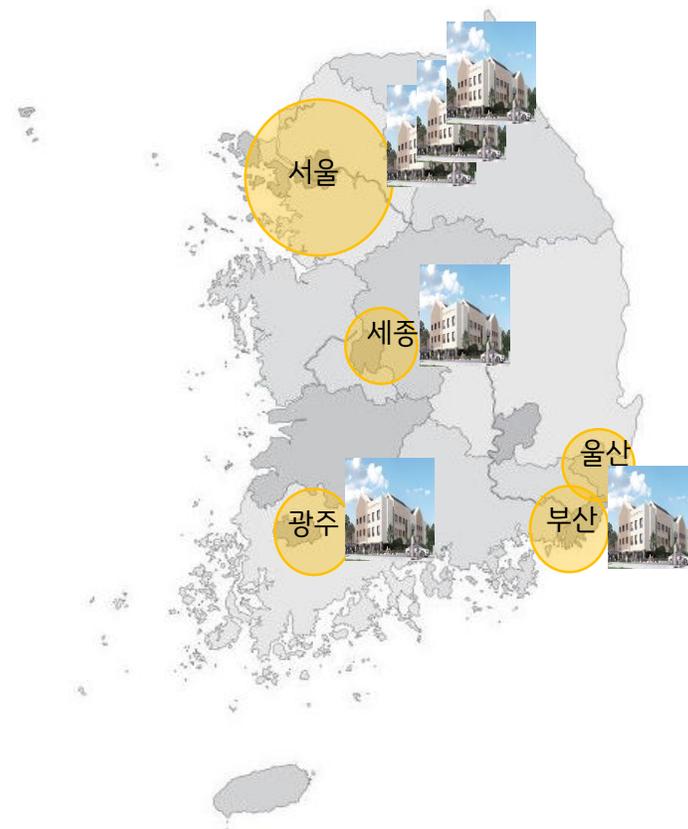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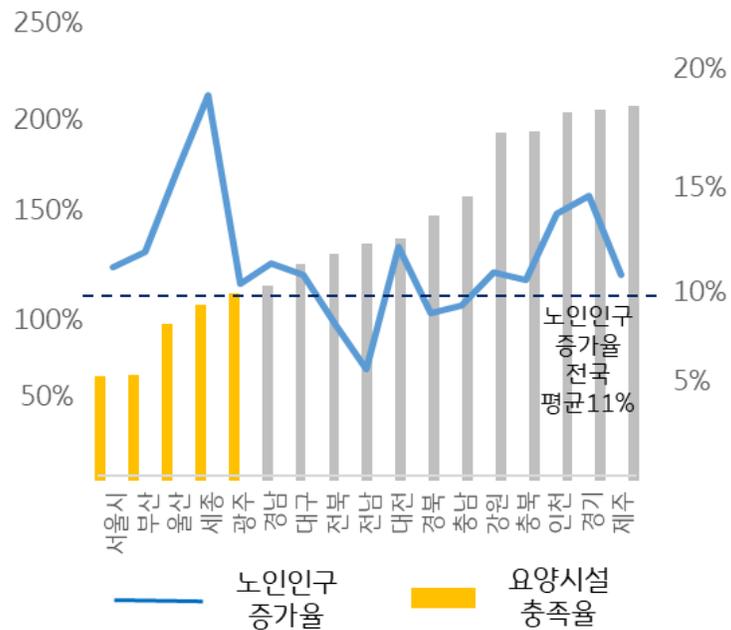
- 1)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2)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3)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KB골드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수요가 확인된 도심형 요양시설 확대

- 요양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은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우선 추진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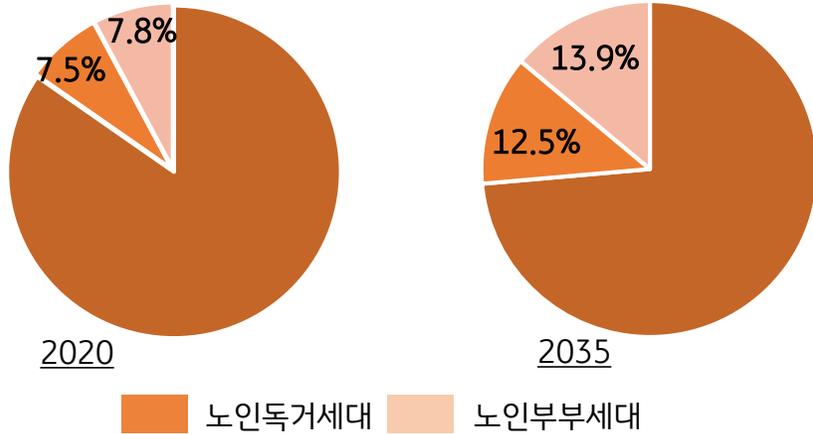
주) 해외 선진사 등과의 제휴 등을 통해 운영 프로세스, 서비스 프로세스, 운영시스템 등의 역량 고도화 추진하여 전문 운영 사업자로 성장

3. KB골드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요양시설 사업을 통해 확보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내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교적 건강한 후기 고령자에게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편의성을 제고하고 주택의 추가 건설없이 다음 세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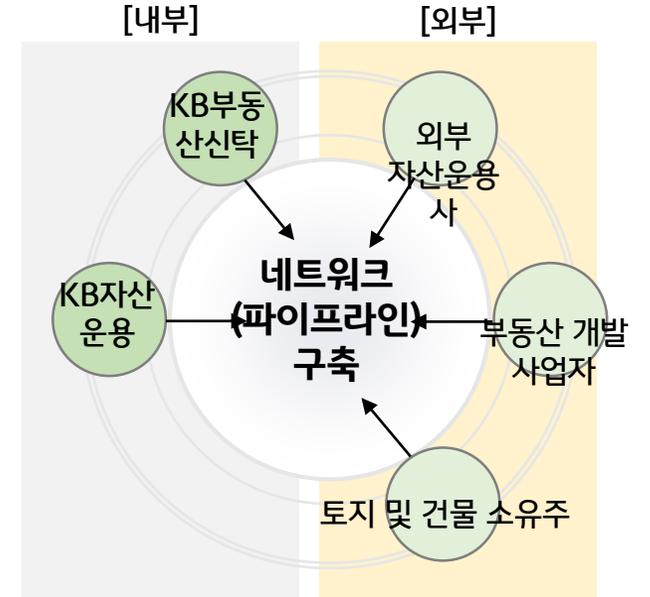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추진

-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와 노인 독거 및 부부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요구는 계속 커질 전망
 - 2020년 15.3%인 전체 가구 중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가구 비중이 2035년 26.4%에 이를 전망



주) 100세 시대 은퇴 이후 노후의 시간이 길어 짐을 의미
 -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과 비례해 증가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거나 노쇠한 상태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짐

- 위례, 서초 빌리지 사업을 통해 확보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그룹 내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교적 건강한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요양 이전 단계의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생활의 불편함과 불안함 해소를 위해 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노쇠 진전 속도를 지연하고 요양원의 입소 시점을 최대한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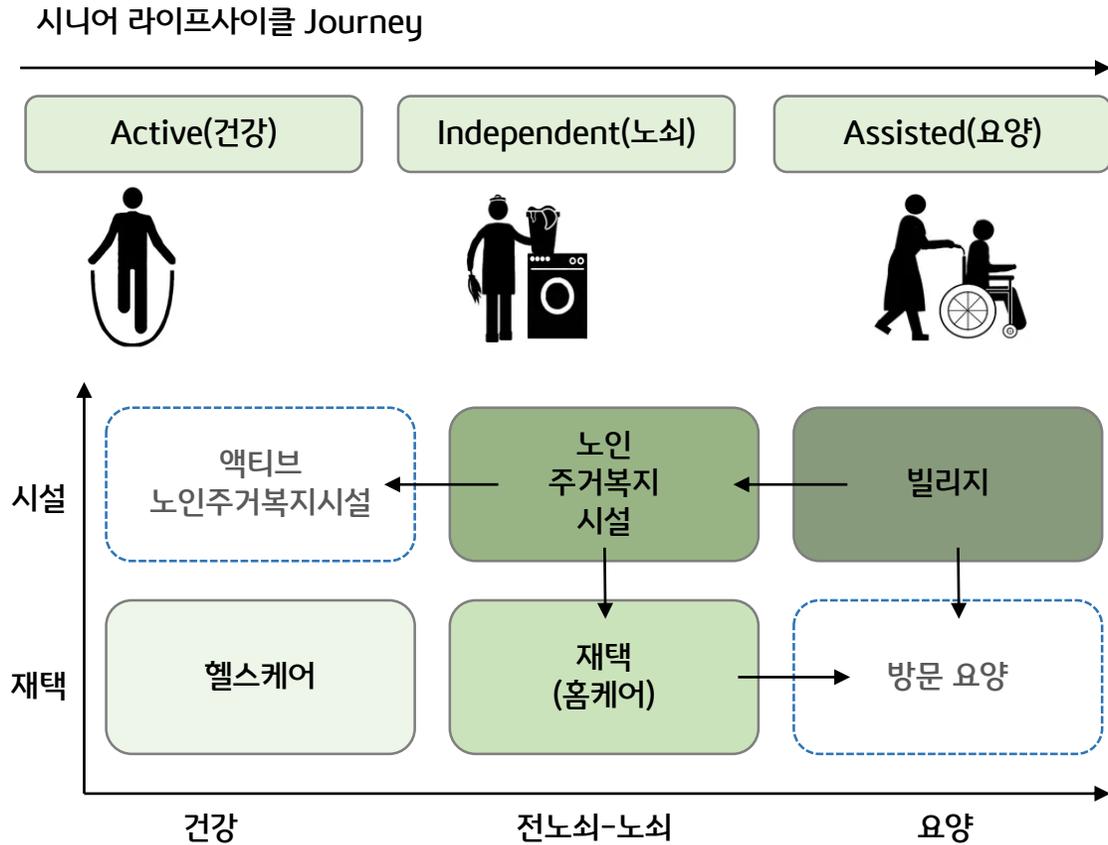
기대 효과

- 노인주거복지시설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편의성을 제고하고 주택의 추가 건설없이 다음 세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창출
 - **(노인 주거 안정)** 노년 생활에 적합하게 지어지지 않은 기존 주택의 이용권을 노인에서 청년 세대로 양도하고, 노인들은 주거복지서비스로 안전과 생활 편의성 제고
 - **(주택공급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 노인의 주택이 대도시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할 경우, 도심 주택 부족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주택 추가 건설 없이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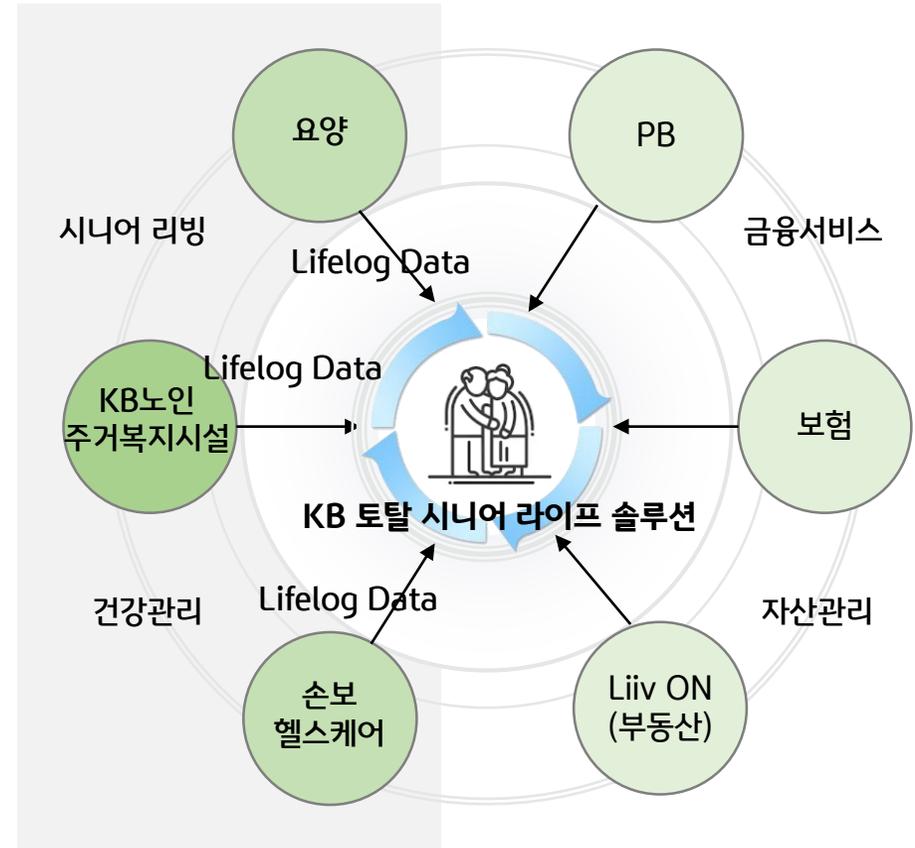
3. KB골든라이프케어 현황 및 계획

시니어 라이프사이클 Journey에 대응하여 헬스케어-노인주거복지서비스-요양으로 이어지는 토탈 시니어 케어 체계 구축

토탈 시니어 케어 체계 구축



KB 토탈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1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 개선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민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요양시설의 설치가 가능

-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의 취지는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이해되나 도심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높아 요양시설 운영사업자가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는 도심지역 내 요양시설 부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도시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요양 시설이 없어 근교 및 지방으로 입소해야 하고, 이는 요양 시설이 지역 돌봄 체계와 분리되는 문제를 낳고 있음

개선 건의 사항

-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신설하여 규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민간자본과 기업의 시장 참여를 유도

[특정 요건 제안]

- 임대/임차 양 당사자가 모두 법인, 임차인이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할 것
- 10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으로 안정적 사용권을 확보할 것
- 임차 법인이 자본금 요건(100억 이상)을 충족할 것(무분별한 진출 및 난립 방지 목적)
- 계약서 내 계약 기간의 갱신, 전대 금지, 임차료 인상 방법 등을 명시할 것

기대효과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자본과 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의 협업 구조가 조성된다면 도심지역에서도 양질의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Aging In Cities 기반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가능

주)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에 현재 설치 주체가 공공인 경우 사용권 확보를 통해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20년 개정)하고 30인 미만의 요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사용권 확보를 통해 설치 가능

4.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보험사의 요양사업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정 개선

개선 필요성

-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많은 자금의 투입 필요
 - 민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가능
- 모회사와 요양사업 자회사간의 신용공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인프라 확충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할 수 있음
 - 많은 자본금의 투입이 필요한 것은 보험사들이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나 실제 진출을 머뭇거리는 이유 중의 하나임
 - 시설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증자는 모회사의 부담 요인이나 신용 공여 시 모회사의 자산 운용 측면에서 접근 가능
-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보험사와의 형평성 고려

개선 건의 사항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제22조(적정 담보 확보 기준 등) 제②항(담보확보 예외 규정) 5호의 일부 개정

- (현재)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 (개선 의견)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한 당해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주)금융지주회사 감독 일부 개정이 곤란할 시 보험사의 요양사업 자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적극 해석 건의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금융업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금융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금융업』으로 명시

[첨부] 보험사의 요양사업 자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 비교 검토 내용

구분	신용 공여	담보 확보		비고
			예외 규정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보험사	<p>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p> <p>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p> <p>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p>	<p>(금융지주법 제48조(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제②항)</p> <p>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적정 담보 확보 기준 등) 제②항)</p> <p>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5.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p>	<p>(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적정담보 기준 등))</p> <p>1. 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p> <p>2.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p>
보험사	<p>보험업법 제 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p> <p>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p> <p>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p> <p>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p>	없음	-	<p>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p> <p>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p>